

## [광복절 집회] 자유와 해방

2018. 8. 15. 이현래 목사님

오늘 8.15일 해방 기념일이기도 하고 광복절이기도 하고 또 건국절이기도 한 중요한 날이다. 40년 동안 한 번도 어떤 절기라고 특별한 말씀을 해 본 적이 없는 데, 오늘 처음으로 광복절 집회를 한다고 하니 나도 마음이 설렘다.

해방직후의 우리나라 사정은 아주 요란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왜 그런지를 잘 몰랐다. 일제나 해방이나 그게 그것이었다. 사실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큰 차이가 별로 없었다.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다. 지식 있는 사람들은 일제 억압에 대한 한탄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으니까 굉장한 날이다.

어떤 시인은 내가 그날이 오면 내 가족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광화문 4거리에서 똥북을 울릴 것이라는 시를 썼다. 그런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가 피부로 느껴졌던 사람들이었으나 일반농민들은 별로 몰랐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보다는 나았기 때문이다. 이조말기로 본다면 그때 농민들보다는 나은 편이었다.

그리고 점점 일본이 문화정책을 쓰면서 한국 사람들이 동화되기 시작했다. 아마도 지금까지 동화정책을 썼다면 거의 동화되었을 것이다. 36년 만에 풀려난 것이 다행이다. 정말 감격스러웠는데 그것도 얼마가지 않아서 파당이 갈라져서 많이 싸웠다.

인류는 자유를 위한 투쟁사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까지 자유하려고 했으니까 인간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어떤 것이겠는가? 에덴동산을 버리고 나올 정도이니까 한번 생각해보라.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는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자유를 얻으려고 먹은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먹었다. 하나님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동산을 관리하도록 직임이 맡겨졌는데, 그것이 아담에게 불편했던 것이다. 자기 스스로 하라고 했으면 잘 했을 것이다. 사람은 만들어지기를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저절로는 못하고 어디선가 무엇이 공급이 되어야만 되게끔 만들어졌다.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라도 운전자가 없이는 스스로 갈 수 없게 만들어놓았다. 그리고 기름을 공급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놓았다.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다.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 본성 상 사람이 만든 물건도 모두 똑같다. 우리 안에 통제가 없이 움직인다는 개념이 본성 속에 없다. 뭘 만들어도 자기처럼 만

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1:26).” 한 것처럼 사람은 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과학의 소원은 무엇이겠는가? 아무 것도 손대지 않고 저절로 움직이는 기계를 꿈꾸고 있다. 만일 기계 스스로가 움직인다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절대로 사람은 그런 기계를 만들지 않을 것이고, 만일 만들었다면 파멸이 되는 것이다.

**자연 질서는 반드시 둘이 연합하여 무엇을 하도록 만들어져있다.** 미국에 가보니까 3천년을 사는 나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주목인데 태평양 연안에 해풍을 타고 온도가 딱 맞는 모양이다. 또 땅이 딱 맞는 모양이다. 이 나무가 3천년 이상을 사는데 그런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다.

그런 나무라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살 수 없다. 땅(토양)을 만나야 되고 물을 먹어야 되고 햇빛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사는 것이지 스스로는 살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도 주목이 있지만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한다.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까지도 그렇다.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다.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배필이 없으면 하나님 자신도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영이시니까 마음은 자유겠지만 생각은 자유겠지만 현실에 드러나려면 뭔가가 있어야 한다.

사람도 마음은 한 없이 자유하다.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평생을 살고 싶을 것이다. 천년만년 죽지 않고 살고 싶은 것이다. 마음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 된다.

하물며 하나님도 그런데 사람이 제한이 없는 인간이 되겠는가?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자신의 본성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을 지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인간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

**아담이 오죽하면 그 좋은 동산, 그 좋은 직임, 영광스러운 직분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었겠는가?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는 말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자유 때문이다.**

물질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것에 목적이 있으면 제멋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목적이 있으면 제한이 있어야 한다.

차는 달려야 한다.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옛날에는 부산에서 서울을 가려면 걸어서 거리가 한 달 이상을 걸어도 서울을 가기가 어렵다. 그런데 기차로 가니까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다. 옛날에 기차가 느릿느릿 갈 때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12시간도 걸렸다. 지금은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면 간다. 기계의 발달은 엄청나다.

아무리 그래도 그럴수록 제동장치가 확실해야 된다. 만일 제동이 안 되면 큰 사고가 난다. 좋은 목적과 계획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더 확고한 제한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목적도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도 그만이고 저렇게 살아도 그만이다. 그러나 중요한 임무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제한이 필요하다.

만일 북한에 갔다 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면, 그 사람은 명령을 어기게 되어 한 치만 잘못되어도 죽는 것이다. 왜냐하면 임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는 죽느냐 사느냐를 걸고 전쟁을 한다. 그리고 국민을 전부 끌어안고 전쟁을 하는 것이니까 명령을 어기고 잘못하면 죽는 것이다.

잘잘못은 고사하고 명령을 어기면 총살이다. 뒤에서 헌병대가 지키고 있다고 한다. 뒤로 도망치는 놈은 그냥 죽이는 것이다. 소대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쟁터에 나가면 생살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어디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지 않으면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한다.

**임무에 따라서 제한이 필요하다.** 돼지처럼 먹고 살다가 죽으려면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만일 내게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다면 그만큼 또 확실한 제한을 받아야 된다.

대통령은 나라를 책임지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과 똑같다. 개인적으로 행하면 별 것 아닌 것도 대통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있다.

만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제한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모든 특권도 다 사라지게 된다. 위치와 용도와 모든 특권이 다 사라진다. 군대는 별 하나에 주어진 특권과 별 2개에 주어진 특권이 엄청나게 다르다고 한다. 별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또 제한이 필요하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 자신을 대신 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맡겼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선악과를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모르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왜 잘못이냐고 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선악과로 살기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선악과가 없으면 안 된다. 돌아가지 않는다.

선악과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교회 토론방에서는 문제가 생겼다. 위치와 용도를 모르고 사람을 보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똑똑한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한 일이지 왜 잘못된 일이냐고 한다.

옳지 못한 것을 보고도 모른 채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나쁜 것을 골라서 다닌다면 멍청한 놈이다. 가게에 가서 물건이 좋은 것이 많은데 하필이면 나쁜 것만 골라서 산다면 바보라고 생각할 것이다.

선악이라는 말은 뭐든지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른 것으로 사용된다. 세상에는 선악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있어야 내 마음대로 하지 그것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런 짓을 하는가 생각하지만 그 사람으로서는 언제든지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한다. 아담에게서 선악과를 빼고 나면 등신이다. 참 이상한 것이다.

###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중요한 임무를 맡겼기 때문이다.**

이것을 경험한 것이 교회를 시작할 때 맨 먼저 부딪친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였다.

그때 형제들이 몇 사람 되지 않았다. 다른 교회처럼 예배나 보고 가버렸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절에 가서 염불을 드리고 오는데 옳고 그른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자기 옳은 대로 하면 그만이다.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자기 집에 가서 사는데 이 사람이 어찌고 저 사람이 어찌고가 소용이 없다.

몇 사람 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하려고 하니 소리가 난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대명동에서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가 등장했다. 교회가 되려면 이 선악과가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회고해 보니까 내가 있던 교단에서 4년 동안 전쟁 혹은 시달리다가 왔는데, 내 생각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 상대방이 하는 짓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이 이해가 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했을 것이다.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래서 4년 동안 버티었다. 싸운 것도 아니고 버틴 것이다.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고 있었던 것뿐이지 달려가서 싸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내가 가장 존경하던 은사였다. 내가 신학교에 갔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전체적인 정신을 물려주신 분이 그분이다. 나에게만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교단 전체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분이였다.

내가 어른 공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다. 아버님 자체가 나이가 많으신 분이어서 주변에 노인분들이 많았다. 나는 어려서부터 나이드신 분들과 관계가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 문제에 딱 부딪치니까 나이로는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그분 아들과 내 나이가 같았다. 그런데 이 선약을 알게 하는 이것에 부딪치니까 절대로 서로가 용납이 안 되었다. 그때는 몰랐다. 뒤로 알게 되었는데, 내가 권위에 대항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권위에 대항하고 있었다는 것을 C.C.C.에 와서 알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가 4년 동안 그분에게 혜택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을 다 내주신 분이시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은혜를 잊을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런데 맞부딪쳤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끝날 일인데 그것이 안 되었다. 왜? 내 안에 선약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까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결국은 두 사람 모두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 그분은 교단을 떠날 수 없는 분이었는데 나와야 하는 사건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가셨고 미국에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뒤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

나도 그때는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 떨어질 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셔서 나는 C.C.C.로 들어갔다. 둘이 완전히 파멸에 이른 판이었다. 나만 은혜를 입었다. 왜 나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지 않았다면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때 이미 결혼했고 큰 딸이 7개월이었다. 7월 20일, 너무너무 더운 때였다. 내가 날짜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 날짜는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

연희동 산꼭대기에 10만원을 주고 방 한 칸을 얻었는데 방이 좁아서 세 사람도 누울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사람과 큰 딸은 처갓집으로 내려 보냈다. 만일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오지 않았다면 나는 어디로 갔겠는가? 내가 건강이 좋아서 노동을 하겠는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교생실습을 하라고 한 것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선생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가 없었

다. 만일 그때 교생실습을 했으면 그때는 취직하기가 쉬운 때였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 금방 되는데 그것까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길을 통해서 전혀 뜻밖의 임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C.C.C.로 밀어 넣어 주었다. C.C.C.에 4년 있다가 나왔지만 누구도 내가 어떻게 C.C.C.로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다. 정식 시험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니다. 뒷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은 시험을 보고 들어갔지만 나는 그냥 소개로 들어갔다.

시험을 봤으면 나는 영락없이 떨어진다. 350명이 지원하고 50명을 뽑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합격 하겠는가? 교단 배경이 좋은가? 실력이 있는가? 뒤로 들어가니까 실력도 소용이 없고 교단 배경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참 놀라운 일이었다. 내 생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C.C.C.에 가서야 그것을 알았다. 내가 사람들과 다투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겨루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 그래서 그때 총회장을 하고 있는 분에게 미안하게 되었다,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는 편지를 썼다.

어른들이 밀어내라고 하니까 그분은 중간에서 나를 밀어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는가? 그때는 얼마나 그 사람이 미웠는지 모른다. 나보다 나이가 5~6살 더 많은 분인데 저렇게 비겁할 수가 있느냐고 생각했다. 순전히 모든 생각이 옳고 그름만 있었지 권위라는 것을 몰랐다. 지금 세상이 어디를 가도 모두 똑같다. 그렇게 세상은 유지되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안에 있는 인간은 반드시 특별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 왜 인간은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그 제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위치가 없어졌다. 용도가 없어졌다. 하나님과 함께 살 특권이 없어져 버렸다.**

에덴동산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영역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역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사는 것이다.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처럼 과부처럼 혼자 사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근본적인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것은 찾지 못하고, 정치적인 자유나 종교적인 자유를 찾은 것이다.

정치적인 자유를 찾아서 미국까지 갔다. 미국은 자유를 위한 투쟁사의 마지막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왜 미국을 좋아하는가? 자유 때문에 좋아한다. 미국의 상징은 자유의 여신상이다. 미국이 돈이 많아서 살기 좋다는 것이 아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한다. 누구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면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불만이 없다. 재능 있는 사람은 많이 벌고, 재능 없는 사람은 적게 버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왜?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살기 좋다는 말이 그 말이다.

총소리가 평평 나면 거기서 어떻게 살겠나 싶다. 어느 술 가게를 가니까 술만 따로 판다. 카운터를 방탄유리로 막아놓았는데 무시무시하고 섬찟 섬찟하다. 잘못하면 총을 꺼내서 쏜다고 한다. 누가 술 한 병을 주머니에 넣어도 총이 있으니까 말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무시무시하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 사는가? 그래도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살지 않을 자유도 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사는 것이지 살지 않을 자유도 있다.

총기 문제 때문에 해마다 미국 의회에 상정이 된다고 한다. 총기 소지를 제한하자고 상정해도 올라갈 때마다 부결이 된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 철없는 학생들이 반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학생들이 죽는 것이 용납이 되겠는가? 그런데 왜 미국의회에서는 금지법을 만들지 않는가? 자유 때문이다. 방어할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미국 사람의 특이한 점이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 정치적인 자유는 저만큼 누렸으면 더 이상 누릴 것이 없다.

**종교적인 자유는 종교 개혁 때 많이 얻은 셈이다.** 카톨릭의 지배 하에서 암흑기를 살다가 개신교로 나왔다. 성경도 마음대로 보게 되었고, 교회도 마음대로 세우게 되었고, 다 자유롭게 하게 되었다. 그런데 또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다른 교파들과 또 싸움이 벌어졌다.

이것은 근원적인 자유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자유를 주어도 또 싸운다. 정치적인 자유는 해결될 수 있다. 종교적인 자유도 해결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인격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부자유하다. 누가 억압하지 않아도 자신이 부자유하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 목적을 방해하게 되고, 또 해도 해도 열매가 없는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것이다. 노력했는데도 마지막에 보면 아무것도 없다. 나이는 많아졌고 늙었고 죽을 날만 있고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돈이 많다고 그것이 자신인가? 아니다. 권력이 많다고 그것이 자신인가? 아니다. 하기는 했는데 열매가 없다. 인생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 위로부터의 공급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만 들끓는 것이지 새로운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정수기에 넣고 물을 계속 돌리지만 새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안 된다.

**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물을 받아야 된다. 이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생명 나무의 길이 막혔다.** 성경을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창3:22).**”라고 한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그 말은 천사처럼 되었다는 말이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창3:22).**”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한다. 영생까지 얻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렸다. 화염검으로 가렸다. 두루 도는 그룹(천사)들로 막았다.

그래서 에덴동산이 어떤 곳인가를 아무도 알 수 없다.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아무도 모른다.

**자유를 취했지만, 정치적인 자유를 취했지만, 종교적인 자유를 취했지만,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모두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이다. 계속 이렇게 자유, 자유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파멸로 나갈 것인가? 사람들이 목적과 용도를 떠나니까 무용지물이 되었다.**

무용지물이 되었으니까 사람은 항상 불안하다. 그리고 만족이 없다. 뭔지 모르겠다 있는 것 같은데 만족이 없다. 용도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일 없는 사람이 제일 편할 것 같은데 일 없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왜 사는가?’ 하는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밥을 먹으면서 내가 왜 이 밥을 먹는가? 잠을 자면서 왜 내가 잠을 자야 되는가? 답이 없다. 그냥 짐승처럼 먹고 짐승처럼 자는 것이다.

자동차가 아주 비싼 자동차인데 가만히 세워놓고 있으면 나는 뭐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기목적을 만들려고 애를 쓴다. 어떤 목적을 만들어보려고 애를 쓴다.

자기목적을 만들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가시덤불이 된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창3:18).**” 가시덤불이 있다는 말은 사방이 찢리고 길을 가로막고 있어 길이 없다는 말이다. 내 목적을 만들어놓으면 갈 곳이 없다. 열매가 없다. 가보았자 헛일이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흠이니(필경은)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3:19).**”고 한다. 여기서 하나도 예외 될 사람이 없다. 아무 목적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있어야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물어볼 수 있다. 하나님이 없는데 누구에게 그것을 물어보겠는가? 사람에게 물어보면 모두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할 것



이다.

내가 교회는 상당히 오래 다녔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엉뚱한 것만 생각하였다.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천당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고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나는 피조물이고,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다. 내가 어떻게 우주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졌다.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내 위에 계셨다. 하나님 나를 왜 지어놓으셨습니까? 이 생각이 그때 처음 났다.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나는 왜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나는 망상에 젖어있었으니까 ‘나는 왜 있는가?’ 하는 생각 자체를 해보지 않았다.

머리가 생기니까 ‘나는 왜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왜 나를 지어놓으셨습니까? 무슨 목적을 지어놓으셨습니까? 그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 전에는 그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다.

그런데 귀신같이 친구가 알고 나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그 친구와 그런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다. 그때 그 친구는 먼 곳 시골에서 목회하는 중이었다. 학생 때는 방학 때 와서 만났지만 목회를 하러 간 다음에는 만난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친구는 평생 편지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전화가 없는 때이니까 전화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나에게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 편지를 쓴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기하다. 글씨가 악필이라서 누구에게라도 편지를 잘 보내지 않는다. 나에게 보낸 것도 양면쟁지에 석 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오랜만에 친구에게 편지하면서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그 소리뿐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대번에 편지가 오기를 하나님이 너를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일을 할 생각이 없느냐? 있으면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내 현실에 그런 생각을 꿈꿀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던 일은 다 망했고, 나이든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무도 보살필 수가 없었다. 손가락 빨고 있을 판인데 엉뚱한 말이 온 것이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다. 내가 왜 나를 지어놓으셨습니까? 라고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내게 빛이 왔다. 이것이구나. 앞뒤는 모르겠지만 대답은 해놓고 봐야겠구나.

나는 결정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이것을 하려면 저것이 생각하고, 저것을 하려면 이것이 생각나서 도저히 결정을 빨리 못한다. 나와 같이 살아본 사람은 잘

안다. 결정을 해놓고도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와 같이 일하는 형제는 답답할 것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앞뒤 생각하지 않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간단한 사건 같은데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때 내 형편이 이렇고 저런데 내가 뭘 그런 것을 하겠느냐고 했으면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다.

나는 그날부터 새로운 제한에 들어갔다. 나는 그것을 몰랐지만 새로운 제한에 들어갔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 안에는 목적이 있다. 공연히 불렀겠는가? 부르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한도 받아야 된다.

이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 견디지 못하고 가버렸다. 전망이 좋은 신학교도 아니니까 여기에 있어보았자 별 희망이 없다고 하고 슬슬 빠져 나갔다. 3년씩이나 기도하여 왔다고 해놓고 지금은 왜 저러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에게서 그런 개념이 없었다. 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부르심이 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냥 불렀겠는가? 사람이 사람을 채용해도 대책을 세우고 채용한다. 월급을 줄 돈도 없는 사람이 사람을 부르겠는가? 빈 손 들고 회사를 모집하겠는가? 아무리 봉의 김선달이라고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다른 신학교 학생들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맨 먼저 파송을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다. 이상한 일을 많이 보았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귀하다.** 정치적 자유는 어느 정도 누렸다고 하지만 종교적인 자유는 갈수록 실패이다. 종교적 자유는 종교적 자유 속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다. 이 신학은 한 없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

옛날에 유명한 어떤 분이 강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생각부터 들었다. 질문서를 내라고 해서 질문을 했더니 대답을 하지 않았다. 교수님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다. 쪽지에 써서 질문을 하라고 해서 썼는데 다른 것은 대답을 해주었는데 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해주지 않았다. 어이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런 질문이 어디 있겠는가?

**종교는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된다.** 죄를 정결케 하려고 제사를 드렸

다. 가인과 아벨은 누가 시키기 전에 자기들이 종교를 만들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강자가 약자를 죽이게 되었다. 종교는 다 그렇다. 약할 때는 어린양인데, 강하면 늑대가 되고 만다.

형이 아우를 죽였다는 말은 강자가 약자를 죽인다는 말이다.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게 된다. 어디를 가도 그렇다.

그리고 **철학적인 사람들은 무지를 해결하려고 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전1:23,24).”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이다.

무지를 해결하려고 나온 것이 불교, 철학 등이다. 결국 찾는 것은 지혜이다. 무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지혜를 찾는다.

지혜는 필로소피아(filosofía)이다. 철학. 지혜를 사랑하다. 지혜를 찾아 가면 될 것 같다. 불교 승려들은 이 지혜를 찾으려고 참선하는 것이다. 헛것을 다 버리고 아닌 것은 다 부정하고 실재만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더 온전해지려고 더 온전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고립이 된다. 다른 사람과 같이는 못한다. 혼자 찾아야 되니까 점점 고립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사람이 스스로 지혜를 얻으려고 해보았자 뒤로 가보면 어떤 면에서는 지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면에서는 다시 혼란에 빠진다. 여기는 바벨탑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인격적인 자유이다. 창조된 사람, 이 사람은 실패했다. 아담은 실패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실패했다.** 다른 종교가 나오면 되는가? 지금보다 다른 종교가 나오면 되는가? 다 똑같다. 인격적인 자유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놓은 자리가 인격이다. 그런데 그 자유가 없어졌다. 그 자유를 무슨 수로 다시 찾겠는가? 재창조밖에는 길이 없다. 여기서 참된 자유를 얻고, 얽매었던 것에서 해방되고, 잃었던 모든 권리와 자유를 찾게 된다.

내가 지혜가 있으면 자유로워지는가? 그렇지도 않다. 지혜가 있으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가? 그것도 아니다. 다시 만드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도 그래서 고쳐보려고 애를 썼다. 율법을 주고 절기를 주어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다. 그것이 구약의 역사이다. 그러나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해보아도 안 되고 저렇게 해보아도 안 되니까 새 언약을 주겠다고 하셨다.

**이 새 언약은 재창조의 언약이다.** “내 법을 그들의(저희) 생각에 두고 그들의(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히8:10).” 사람 속에 어떻게 하나님 법을 넣겠는

가? 사람이 새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사람을 해부하여 넣겠는가? 가르쳐서 들어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인격적 자유는 재창조 안에서만 가능하다.** 나는 쉽게 생각했는데 인격이라는 말 자체도 서양 말에는 없다고 한다. 참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도덕적 의미에서 인격자를 말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물에게 각자 자기 격을 주었다. 소에게는 소의 격을, 개에게는 개의 격을 주었다. 그것이 없어졌다는 말이다. 그것을 잃어버렸다.

도덕적인 격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다. 이 격을 잃고 나서 만들어놓은 것이 도덕적인 격이다. 도덕적인 사람을 보고 참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동양에서는 인격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서양에서는 인격적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한다.

**재창조 속에만 참된 자유가 있다. 무엇이 재창조인가?** 또 다시 흠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되풀이 할 것인가? 꼭 같은 말이다. “내 법을 그들의(저희) 생각에 두고 그들의(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히 8:10).”는 이 말이나 흠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이 재창조이다. 이것을 보고 새 생명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유대인 공회원이 70명이 있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다. 유대인 전 민족으로 70인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다. 카톨릭으로 말하면 추기경 급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거기에 올라가는가? 못 올라간다.

그런 사람인데 선한 일에 대해서 의논하려고 왔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없으시고,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선한 이야기를 해보았자 안 된다는 말이다.

개에게 온갖 장식을 해서 데리고 다니는데 그렇다고 개가 개가 아니고 다른 것이 되는가? 나는 그것을 볼 때마다 웃긴다. 개에게 옷을 입힌다고 입혀 놓으니까 개는 얼마나 괴롭겠는가? 자기 털로 피부를 보호해야 되는데, 옷을 입혀 놓으니까 털 있는 짐승에게 옷을 입히면 피부병이 생긴다. 피부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야 된다. 개는 보험도 없으니까 사람보다 더 돈이 많이 든다. 제발 옷은 입히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옷을 입히는지 모르겠다. 옷을 입히지 않는 것이 더 예쁜데 옷을 입혀놓으니까 얼마나 꼴볼견인지 모르겠다.

모두 격이 있다. 피조물마다 격이 있다. 그 격에 있으면 아름답다. 그 격을 벗어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엉성하고 이상하다. 원래 하나님이 붙여주었는데 그것을 벗어나니까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원래 생긴 것에 엉뚱한 것을 붙여놓으면 좋게 보이겠는가? 깎고 세우는데 아무래도 원래 있는 것만 못하다. 겨울에 추우면 푸르뎅뎅해지는데 좋겠는가?

**다시 창조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창조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그 죽으심은 우리를 구속한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되신 분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니까 그냥 사람이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은 그냥 사람이더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행하신 능력은 무엇인가? 신이 아니고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하겠는가? 신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 노릇하고,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 노릇하게 되어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했다. 사람이다. 사람인데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런 일을 했던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것은 떠났다. 분리되었다. 그러므로 딱 사람만 남는다. 그것이 찾아야 할 우리 자신이다.**

불교에서는 나를 찾아 떠나는 길, 자기를 찾는다라고 자아를 찾는다라고 애를 쓰고 있다. 딱 보면 아는데 왜 찾아 돌아다니는가? 우리가 얼마나 높은 경지에 와 있는 줄 아는가? 평생을 자기를 찾고 다닌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 거기에 딱 인간이 들어있다. 완전하고 순수한, 전혀 변질되지 않는 사람의 위치가 딱 거기에 있다. 그것이 나다. 그런데 어디를 돌아다니는가? 자기를 생각하면 자기가 다 알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 같다.

나는 괜히 사서 고생한다고 한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사서 고생하고 다닌다. 평생 그것을 찾느라고 자기 인생이 다 간다. 그렇지만 나는 나를 찾다가 나를 찾았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다.

내가 찾은 나와 내가 예수 안에서 본 나는 같지 않다. 나는 항상 나를 찾아놓아도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니다. 뭐가 물어도 다 물어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보니까 묻은 것이 없다. 내가 변명할 것이 없다. 조금도 내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저 사람도 저러면 나는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가 거기

서 완전하게 피조물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완전히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속은 것이다. 잘못 안 것이다. 예수는 완전하게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또 이런 사람이 있다. 이것이 이 문제 때문에 2천년 동안 싸우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통합시켜 보려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론이다.

삼위일체론은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 삼위일체론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른다. 마지막에 결론지은 것이 그것이다. 어떻게 결론을 지을 것인가를 회의를 하다가 황제가 지금 결정된 삼위일체론을 지지한 것이다. 그렇게 결정된 것이다. 완전한 이론이 못되는 것이다. 사람이고 하나님이다. 이것이 어떻게 이론적으로 성립이 되겠는가? 희랍인들의 머리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결국 황제의 결정에 따라서 결제가 된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했으니깐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황제의 결정으로 된 교리를 가지고 그것을 믿니 안 믿니 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했다.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에서 위치를 회복한다.** 거기서 나를 못 찾으면 이제는 진짜로 찾을 데가 없다. 그것을 회피하면 내가 만들어낸 나를 또 만들어 낸다. 그것을 시인하면 나는 어려움 없이 내 인생을 알게 된다. 너무 간단하다.

있는 것을 보고 시인하면 너무 쉬운 것을 없는 것을 찾으려고 하니깐 만들려고 하니깐 얼마나 어렵겠는가!

이번에 태양까지도 탐사선을 쏘아 올렸는데, 그 위성이 태양 주변을 7년을 돈다고 한다. 그러면서 태양의 상태를 탐사한다고 한다. 세상에 인간의 머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상상이 안 된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에 타지 않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게 두꺼운 것이 아니고 10cm인가 그것밖에 안 된다. 그것을 가지고 태양열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인간의 머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그런데 자기를 찾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으니깐 내가 나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 문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못 찾는 나를 발견

하게 해 준다.

둘이 싸우는 것을 보면 서로 자기를 가지고 싸운다. 자기가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싸우다가 그만두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꼭 자기도 잘한 것이 있다. 100% 못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잘한 것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으니깐 이 싸움이 끝이 나지 않는다.

부부간에 싸우면 둘이 다 서로 잘한 것이 있다. 그래서 끝이 안 난다. 남자들은 여자들과 그런 일로 싸우면 진다. 왜 지는가? 남자들은 포괄적으로 생각한다. 여자들은 직선적이고 포괄적이 아니고 아주 단순하게 찌르는 것이다. 남자는 말에 진다. 여자들에게 말에 이길 사람이 없다.

한 가지만 물고 늘어지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남자가 말로 이길 것 같지만 말로는 절대로 못 이기니까 주먹이 나가는 것이다. 말로 이기면 무엇 때문에 주먹이 나가겠는가? 아예 싸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말 한마디 해보고 반대하면 그냥 끝내야지 그것을 기어코 설득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것은 내 경험이다. 일찍 포기하는 것이 낫다. 송곳으로 뚫는 것과 못으로 뚫는 것 중 누가 이기겠는가? 송곳으로 뚫는 것이 이긴다. 여자들은 송곳처럼 아주 예리하다.

우리가 스스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나 스스로 맞다고 한 것은 내가 아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라야 이의가 없는 나다.** 아무 이의가 없는 것이다. 그 아무 이의가 없는 내가 발견되어야 내가 위치가 회복된다. 내가 여기 있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처음에 내가 피조물임을 깊이 안 것은 아니다. 대강 아는 것이다. 그 때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무슨 우주에 대해서, 무슨 영생에 대해서 이런 것을 생각할 자격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그것은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한 것이 되지 못했다.

이제 확실한 것은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이구나. 십자가 안에 있는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왔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시작이 거기서 시작을 해서 결론이 그곳으로 온다.

내가 제 코스로 온 것 같다. 길을 제대로 온 것 같다. 길을 헛갈리지 않고 온 것인데, 내가 일부러 그것을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만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와보니까 거기다.

내가 지금 갈 데가 거기 밖에는 없다. 성경을 봐도 그 자리밖에 안 보인다. 모든 게 다 그렇다. 나는 갈 데가 그 길 밖에 없다. 나는 지금까지 그 길밖에 없는 길을 왔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에 섰으면 나는 선택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선택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한 길만 걸어왔다. 이것은 내가 일부러 잘한 것이 아니다. 내가 성질이 좋고 판단력이 좋아서가 아니다. 나에게는 그 길 밖에 없었으니까 그 길로 올 수 밖에 없었다. 내가 <주의 손에 이끌려>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만 인도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무엇을 결정해 본 적이 없다. 내가 무엇을 결정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한 것이 없다. 그냥 그렇게 왔는데 정통으로 왔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그 믿음이 십자가에서 딱 맞다.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빛나가지 않고 왔는지 모르겠다.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어떻게 이 길로 왔는지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다. 내가 했다고 할 수가 없다.

**죽으심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전에 예수를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르겠더라. 특별히 모르겠는 것이 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는가를 모르겠더라. 성경 공부를 해도 모르겠고, 신학교에서 배운다고 해도 모르겠고, 그것을 모르겠더라. 그런데 이것이 물어보기 창피한 말인 것이다. 온 세상이 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나 혼자서 그것이 무슨 소리냐고 하면 체면이 되겠는가? 차라리 내가 신학교도 안 갔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멍청한 질문을 누구에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내 속에는 항상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었다. 왜 나 때문에 죽었는가? 왜 나 때문에 죽었나? 내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죽을 일까지는 없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죄까지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내 위치를 회복하려고 죽었구나. 나를 발견하게 하려고 죽었구나. 내가 죽어봤어야 될 일인데 내 대신 죽었다. 내 대신 죽었다는 말이 그 말이다.** 내가 죽어야 알 일인데 내가 죽어서 알면 헛일이다. 죽어서 알면 누가 이 말을 전하겠는가? 내가 죽어서 나는 예수 안에 있었구나 하고 죽어서 안다면 누가 온 인류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말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살려 놓은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무도 말 할 사람이 없다. 다 이적을 행한 예수를 따라간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다 달아나 버렸다. 다 버리고 가버렸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다. 나도 거기 있었으면 버리고 갈 사람인데, 그럴 사람을 놓고 너를 위해 죽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가?



내가 양심 불량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지경을 봤으면 내가 거기서 무슨 희망을 가졌겠는가? 아무리 친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희망이 생기겠는가? 혹시 동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희망이 생길 수는 없는 일이다.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달아난 것은 너무 너무 당연한 일이다. 비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한다. 사도들은 어째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는가? 또 왜 사도들은 나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하겠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그 말을 하겠는가? 죽은 사람을 놓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아니면 내가 그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우러러 본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우러러 본 사람이 아니고 불쌍하네, 내가 잘못 알았네, 이려고 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서 자기가 발견된다는 것은 계시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죽음 안에서 구속된다. 다른 데서 우리가 위치 회복될 데가 없다.** 구속이 없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모든 것들이 올 수가 없다. 내 위치가 일단 제대로 되어야 거기에 뭐가 오는 것인지 위치가 빗나갔는데 뭐가 오겠는가?

그런데 위치는 빗나갔는데 거기에 매일 구한다. ‘주시옵소서, 해 주시옵소서.’ 한다. 간첩이 와서 우리 정부에게 기도하기를 나를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되겠는가? 위치가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위치가 달라야 된다. 낙동강이 왜 그렇게 흐르는지 아는가? 위치가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물이 그리 흐른다. 아무 땅에나 강이 되지 않는다. 강은 바닥을 보면 다 암석으로 깔려 있다. 그래서 물이 새 나가지 않는다. 그러다가 모래 같은 것이 많으면 강물이 갑자기 없어진다. 그러다가 다시 또 나온다. 물은 길이 있어서 가는 것이 길이 없는 데로 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모든 것도 길이 있어야 간다.** 아무데나 달라고 한다고 주겠는가? 우리 위치가 제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위치에 있어야 한다. 위치가 없으면 아무리 해도 다 헛일이다. 구속이 첫 번째이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속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다. 우리의 구원은 구속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 위치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다. 위치를 회복해야 정상적인 관계가 된다. 위치가 틀어졌는데 정상적인 관계가 되겠는가?

사장과 사원이 위치가 틀어졌는데 정상적인 관계가 되겠는가? 사원이 항상 다른 곳에 가려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장과 정상적인 관계가 되겠는가? 그래서 월급은 제대로 받겠는가? 위치가 이탈되어 있으면 저놈은 언제 나가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월급을 좀 올려줘야 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가?

위치가 이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밀어낼까를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줄까를 생각하고 있겠는가? 왜 월급을 적게 주냐 왜 돈을 안 주느냐고 해보았자 소용이 없다. 이익이 되어야 많이 준다. 그 종업원이 있으면 이익이 되면 왜 안주겠는가? 이익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다.

**전부 길이 있다. 축복도 길이 있다. 물이 흐르는 길이 있듯이 하나님의 축복도 흘러가는 길이 있다. 위치가 먼저 회복되어야 그 다음에 다른 일이 생긴다.**

그러고 나서 다시 살리심 안에서, 우리는 그 다음일은 잘 모른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사람이 가끔 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위치**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는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다**. 그때도 내가 또 주인이 되어서 하려니까 그렇다. 내가 위치가 회복됐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책임이다. 너무 쉽다. 위치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모든 권리가 다 회복된다.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보지 않고 어떻게 아느냐? 도마 같은 사람은 옆구리를 손으로 찔러보고 알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옆구리에 손도 만져볼 수 없지 부활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는가?

부활사건을 나는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위치를 회복한 사람이 그 위치에서 살면 다른 삶이 생기게 된다. 그것을 말 할 수 없다. 말로 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부활사건을 말함에 있어서 조금씩 다 다르다. 사도들이 다 조금씩 다르게 말한다. 왜냐하면 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수 만난 것도 다르고 경험이 다 다르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위치가 회복되었으면 그의 것인데 내가 알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가 알아서 하면 될 일이다.

**나를 왜 위치 회복시키려고 하겠는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위치를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내 인생이 잘못 되었으니까 불쌍해서 위치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쓰시려면 위치가 회복되어야 한다. 위치가 바른 사람을 데려다 써야 되지 위치가 틀린 사람을 어떻게 쓰겠는가? 쓸 수가 없다. 아무리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말은 위치로 회복시키시는데 자비로우시다는 말이지 위치가 틀린 사람에게도 자비롭다는 말은 안 된다. 위치가 발라야 한다. 먼저 위치가 발라야 한다.

제자는 제자로서의 위치가 있어야 되고, 선생은 선생으로서의 위치가 있어야 된다. 가르쳐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 왜 안 가르쳐 주고 싶은가? 학생답지 않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다.

‘선생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선생님은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인가? ‘선생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아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물으면 그것이 선생님인가, 뭔가? 이렇게 하면 아는 것도 안 가르쳐주고 싶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찾아가서 일부러라도 꼬집어 당겨서라도 가르쳐주고 싶다. 학생다운 사람에게는 선생도 가르쳐주고 싶다. 나도 남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가르쳐주기 싫은 사람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찌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자기대로 다 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너 잘 알아보라고 한다.

**위치**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요8:36).”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될 것이라고 했다.

**위치**가 회복되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 되도록 지어진 것이다. 사람이 없을 때는 천사가 아들이었다. 그런데 천사가 아들인 것과 사람이 아들인 것은 아주 차원이 다른 것이다.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부득이 천사를 사용한 것이지 사람이 제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이 왜 천사를 사용하겠는가? 천사는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부르신 자들이다. 사람이 사람의 위치에 있으니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고 한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시험을 한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라고 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때 돌로 떡을 만들었는가?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4:4).”**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나는 사람이다. 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해석한다. 그런데 나는 사람이다. 이 말이다.

그 마귀들은 어떻게 되는가? 마귀는 물러나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고 한다. 천사는 바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섬기려고 있는 존재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천사가 수종을 들지 사람이 제 위치를 벗어나면 천사가 왜 수종을 들겠는가? 우리가 일을 할 때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천사가 다 해준다. 천사가 해주는데 누구 일을 해주는가? 하나님 아들의 일을 해준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아들로서의 자유가 아니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죽음 안에서 우리는 구속되고, 살리심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 특별히 무엇에 자유가 되는가? 하나님 표현에 자유하게 된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

우리는 무슨 이유 때문에 막혀서 하나님의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자기 위치가 그것이니까 하나님 표현밖에 할 것이 없다. 죽으나 사나 그것밖에 할 일이 없다.

**옛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홀로 선 생명이다. 홀로 산 사람, 홀아비다. 새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와 연합한 생명이다. 예수와 연합한다는 말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과 내가 하나라는 말이다.**

내가 사정해서 연합한 것도 아니고, 그가 오셔서 아무리 해도 안됐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치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가? 십자가에서 비로소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홀로 선 생명에서 연합한 생명으로 바뀌진 것이다. 홀로 산 사람이 결혼해서 산 사람과 같이 된 것이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홀로 사는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머리뎡기를 땀고 다녔다. 초립동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아도 하대를 한다. 우리 제도가 참 특이하

고 이상하다.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는 말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은 어른이 아니고 그냥 어린애라는 것이다. 혼자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독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 있는 것이 똑똑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못한 것이다. 똑똑해지는 것 같은데 못한 것이 되어 버린다.

홀로 선 생명이니까 이것은 무정란이나 마찬가지로이다. 지 혼자 똑똑한 것이지만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연합되지 않고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다. 연합된 생명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무리 못한 짐승이라도 연합된 것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

서양의 우상은 불사조다. 그리고 그것이 남성 여성이 없는 그런 무서운 동물이다. 그것을 이상으로 생각을 했다. 둘이 연합한 것은 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강한 사람은 불사조처럼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런데 그것은 무정란이나 똑같은 것이다. 계란은 계란인데 병아리가 안 된다.

**사람은 연합 안에서, 특별히 새 사람은 예수 안에서 연합한 사람이다. 새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안에서 연합한 사람, 이 사람이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새 사람이 되면 코가 높아지는가? 눈이 커지는가? 이것이 아니고, 새 사람은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 예수 안에서 연합된 사람이다.

로마서 6장 마지막에는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6:23).**” 이렇게 해 놓고 7장은 삽입된 장이다.

8장 1절 2절에 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8:1,2).**”고 한다.

로마서 6장을 읽고 8장에 들어가면 연결이 되고 7장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7:24).**” 이라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므로 하면 이상한데 로마서 7장은 목적이 있어서 삽입해 놓은 장이다. 그냥 연결해서 읽으려면 6장 23절에서 8장 1절로 바로 와야 말이 맞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이것이 믿는 사람의 과제다. 큰 과제다.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꼭 있는가? 있을 수가 있

는가? 무슨 수로 내가 예수 안에 꼭 있겠는가? 또 어떻게 무슨 수로 예수를 내 안에 모시겠는가? 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예수를 못 만나면, 내가 그 안에 있을 수도 없고 그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없다.

예수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14:20).”고 말했다. 그 날이 언제인가? 그날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발견한 날이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14:20).” 알면 된다. 너무 쉬운 것이다. 알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 위치가 드러난다. 여기서 우리의 인격적 자유가 생기게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 거기에 대한 자유가 생기게 된다. 이 자유가 있어야 모든데 자유하게 된다.

땡중들은 절에서 한마디 듣고 자기가 해탈한 사람처럼 다니는 사람들이다. 땡중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 중은 아직도 덜 되었다고 한다. 나는 아직 모자란다고 하는데, 땡중들은 자기가 해탈한 것처럼 돌아다닌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거나 이래서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아들이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다.

**예수 안에서 연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새 언약의 사람들이다.**

여기서 하나님 표현의 자유가 생기니까 내가 다른 자유가 별로 안 필요해진다. 하나님 표현의 자유가 생기면 사람이 진짜로 자유해지기 때문에 외부적인 압박이 대수롭지 않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래도 얽매이게 되고 저래도 얽매이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 표현이 자유롭게 되면 조금 얽매이는 것이 와도 대수롭지 않다. 왜냐하면 묶어봐야 손 밖에 더 묶겠는가? 가둬봐야 형무소에 밖에 더 가둬놓겠는가?

그런데 그전에는 형무소에 안 가둬놓아도 손도 안 묶어놓아도 내가 내 인격의 자유가 없으니까 모든 것에 내가 억압을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 억압받는 것이다. 그런데 인격의 자유가 생기면 모든 것에서 억압될지라도 나는 자유하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일어나서 찬송을 했다고 한다. 옥에 갇혀있으면서 일어서서 찬송을 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기 인격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자유

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참된 자유로 광복절을 맞기를 바란다.  
일제 강점기나 한국시대나 그것이 그것이었는데 그래도 일제 강점기보다는 우리 민족이니까 낫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라고 할 수 없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자유가 왔다.  
그러나 그것도 자유인가? 자유가 아니다. 예술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르네상스가 예술의 부흥이다. 그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표현의 자유가 생겼다고 한다. 이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맘대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피카소의 그림은 이상하다. 사람 눈이 하나밖에 없다든지 이런 식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정신세계를 그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유명한 그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는 해방이 되었다.

**참된 인격의 해방이 없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비로소 인격의 해방이 된다.**